

지동원 드디어 출격

전남, 안방서 '서울 징크스' 깨고 2승 도전

울산 원정 광주FC도 '승점 사냥'

패기의 광주가 관록의 울산을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안방에서 서울을 맞이하는 전남은 '서울 징크스' 탈출에 도전한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20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울산 현대와 K리그 3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지난주 수원을 상대로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한 광주는 설기현·송종국·곽태휘 등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이 버틴 울산을 패기로 제압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대구와의 데뷔전에서 박기동·김동섭 '태극 듀오'의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3-2 승리를 거둔 뒤 지난 수원 원정에는 경기 시작 25초만에 김동섭의 골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1-2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위력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다.

조광래호와 홍명보호에 승선한 박기동·김동섭도 울산 경기를 소화한 뒤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라 공격라인은 '이상무'.

광주 최만희 감독은 초반부터 빠른 공격을 전개해 2패를 기록중인 울산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해성 감독이 이끄는 전남 드래곤즈는 안방에서 '서울 징크스' 깨기에 나선다.

전남은 2004년 7월25일 이후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5무4패를 기록하며 9경기 연속 무승 행진중이다.

2009년 홈 개막전에서는 기성용·이청용 '쌍용'의 활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1-6의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 시즌 성적은 전남이 1승1패로 1무1패의 서울보다는 앞서있다.

'디펜딩 챔피언' 서울은 개막전 수원과의 라이벌 대결에서 0-2로 패배를 기록했고, 지난 12일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1-1로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항저우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2차전에서 3-0으로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남은 압박 수비와 기동력으로 서울 골문을 겨냥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용병 레이나를 앞세워 승점 사냥에 나선 전남에는 지동원의 복귀라는 호재도 기다리고 있다.

지동원은 지난달 20일 일본 전지훈련 중 치른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연습경기 때 오른쪽 무릎을 다쳐 올 시즌 그라운드에서 서지 못했다.

재활과 자체 미니게임등을 소화하며 몸을 준비해온 지동원은 20일 서울과의 경기를 복귀전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벙커 탈출

최경주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랜지션스 챔피언십 첫날 18번 홀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최경주는 이날 버디 3개에 보기 1개를 묶어 2연타 69타를 기록하며 공동 31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차세대 거포' 김주형 홈런 2방

KIA 타선 폭발...SK에 8대0 완승

'포크볼 장착' 윤석민 4이닝 무실점

잠자던 KIA 타선이 폭발했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김주형의 홈런 두 방을 앞세워 8-0으로 완승을 거뒀다.

KIA 타자들은 송은범을 선발로 내세운 SK 마운드를 상대로 장단 12안타를 때려내며 모처럼의 타격전을 전개했다.

3루수겸 3번타자로 선발 출전한 김주형은 홈런 두 개를 포함, 4타수4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타격 선봉에 섰다.

1회초 송은범을 상대로 좌전안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3-0으로 앞선 5회 1사에서 타석에 들어서 SK의 세 번째 투수 최원재를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렸다.

7회초 1사 1-2루에서 좌전안타로 1타점을 더한 김주형은 6-0의 리드바전개된 9회초 2사 1루에서 다시 한번 좌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8-0을 만들었다.

플타자로 나온 신종필도 두 개의 삼진을 당하기는 했지만 3안타를 터트리며 세 차례 홈을 밟았다. 신종필은 도루도 2개 추가하면서 플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마운드 싸움에서도 KIA가 완승을 거뒀다.

신무기 포크볼을 장착한 윤석민은 선발로 출격해 4이닝동안 3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를 선보였다.

최고 구속 147km를 기록한 윤석민은 자신의 장기인 고속 슬라이더는 물론 체인지업과 포크볼까지 던지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줬다. 윤석민에 이어 등판한 박성호·곽정철·유동훈도 탈삼진 페이드에 나서 10개의 삼진을 뽑아내며 철벽 마운드를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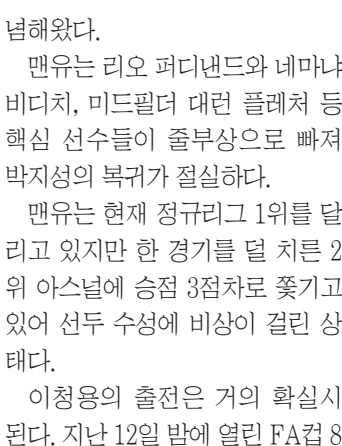
SK와의 시범경기에서 1승1패를 기록한 KIA는 대구로 자리를 옮겨 주말 삼성과의 2연전을 갖는다. 19일부터는 부상에서 선수단에 합류하지 못했던 최희갑과 이용규까지 가세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성-청용 주말 '빅뱅'

EPL 리그 나란히 출격 두번째 맞대결



박지성



이청용

남해왔다. 맨유는 리오 퍼디낸드와 네마냐 비디치, 미드필더 대런 플래처 등 핵심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빠져 박지성의 복귀가 절실하다.

맨유는 현재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아스널에 승점 3점차로 쫓기고 있어 선두 수성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청용의 출전은 거의 확실시된다. 지난 12일 밤에 열린 FA컵 8강전에서 이청용은 후반 45분 그림 같은 헤딩 결승골을 넣어 3-2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이청용은 이번에 터뜨린 시즌 3호골로 3골 7도움을 기록, 2년 연속 두자릿수 공격포인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박지성도 나란히 두자릿수 공격포인트(6골 4도움)를 올린 만큼, 이청용과의 주말 맞대결 성사 여부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높다. 박지성과 이청용은 지난해 9월 정규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다.

맨유와 불타의 경기는 19일 자정 맨유의 홈 구장인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다.

박주영(AS모나코)은 21일 새벽 1시에 열리는 정규리그 28라운드

남시와의 홈 경기에서 시즌 10호골 사냥에 나선다. 지난달 27일 SM강과의 홈 경기에서 시즌 8호골과 9호골을 잇달아 터뜨렸던 박주영은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선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박주영이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2008년 프랑스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두자릿수 득점에 성공하게 된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손흥민(함부르크)과 구자철(볼프스부르크)도 각각 19일, 21일에 치르는 정규리그 경기에 나설 전망이다.

셀틱의 기성용은 21일 새벽 라이벌 레인저스와의 리그컵 대회 경기에 출전한다.

연습뉴스

양궁 국가대표평가전

오진혁·정다소미 1위

오진혁(농수산홍소포)과 정다소미(경희대)가 한국 양궁 국가대표 1차 평가전에서 1위를 확정했다.

오진혁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멜버른 무라린 아처리클럽에서 벌어진 평가전에서 5회전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종합 배점 40을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

2위는 고교부에서 성인부로 올라온 김우진(32점·청주시청)이 차지했고, 3위는 그간 국가대표 예이스로 활약했던 임동현(28점·청주시청)에게 돌아갔다.

오진혁과 김우진, 임동현은 작년 11월 중국 광저우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선수들로, 일단 1차 평가전에서 기록권을 지켰다.

여자부에서는 작년 국가대표들이 대거 하위권에 머무는 등 물갈이 분위기가 완연해졌다. 새 얼굴인 정다소미는 종합 배점 35를 기록해 역시 새로 가세한 한경희(29점·전북도청)와 작년 국가대표 주현정(28점·현대모비스)을 따돌리고 1위가 됐다.

아시아게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고 세계 왕중왕전인 국제양궁연맹(FITA) 월드컵 파이널까지 제패한 윤옥희(예천군청)는 9점을 기록해 최하위로 떨어졌다. 작년 국가대표로서 FITA 월드컵 금메달을 나눠 가진 김문정(20점·청원군청)과 기보배(16점·광주광역시청)도 각각 5위와 6위로 처졌다.

연습뉴스

日 지진에 한일 V리그 토크치 무산

일본을 뒤흔친 대지진 여파에 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내달 말 예정된 2011 한일 V리그 토크치도 무산됐다.

지지통신은 지진 피해가 커지면서 일본 배구리그기구가 4월24일 사이타마시 종합체육관에서 예정된 토크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한일 V리그 토크치는 양국 프로배구 우승팀이 맞붙어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로 2006년 시작돼 올해로 5번째를 맞는다.

2009년까지는 리그 1, 2위 팀이 서로 한 번씩 대결해 성적으로 순위를 갈랐지만, 지난해부터 우승팀 간의 단판 승부로 방식이 변경됐다.

한편 1년 만의 복귀전이 무산된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20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김연아는 원래 21~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예정이던 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려고 20일 도쿄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11일 일본을 뒤흔친 지진과 해일로 ISU가 정해진 기간에 대회를 치르지 않기로 하자 곧장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환축

▲김진오(㈜탑스 대표이사)·주영미씨 장남 대웅군 신병수(건설업)·김향미씨 장녀 현정양=20일(일) 낮 12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부음

▲최순남씨 별세 고일석·중석·행남·행숙·행자·숙자씨 모친상 이맹호·민중만·주철식·남승우씨 빙모상=발인 20일(일)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양국열씨 별세 시훈·시호·영옥·영숙·영란씨 부친상 장태현·강명기씨 빙모상=발인 19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이애남씨 별세 김두식·창국·

총렬·일씨 모친상 조화련·김경진씨 빙모상 나영희·문봉자·이선미씨 시모상=발인 19일(토)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이진만 님(남/71세)
子/子婦: 이남현 / 임미란, 남수 / 정오숙
女/婿: 이유순 / 박용주
• 발인: 3월 20일 09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故 이준범 님(남/78세)
子/子婦: 이형동 / 이정화, 중수 / 김영미
女/婿: 이종선 / 최수진
• 발인: 3월 20일
• 장지: 영락공원
• 직통: 227-4385
마음까지 편안함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인 송희동 님(남/60세)
子/子婦: 송기춘/김리
未成人: 김형민
• 발인: 3월 20일 09시00분
• 장지: 담양 대덕면 선영
故인 심종태 님(남/86세)
子/子婦: 심관식/최영숙, 홍성 / 김원숙, 익성 / 홍향숙
민식 / 임경민, 의성 / 최향순
女/婿: 심학남 / 정영채, 향철 / 김다기
• 발인: 3월 19일 09시00분
• 장지: 곡성선영
• 연락처: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062)250-4455